

GIST, 제59회 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초청 강연 열려

- 9월 29일(월), GIST 오룡관에서 제59회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윤종인 초빙교수 초청 강연 「기술의 시대와 인간, 그리고 공동체」 진행
- 최신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이 던지는 공동체적 가치·책임 강조하며 시민·기업·정부의 역할 논의... AI·빅데이터·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대응 필요성 역설



▲ GIST아카데미가 9월 29일(월) 이화여대 윤종인 초빙교수를 초청해 오룡관에서 9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9월 29일(월) 오룡관에서 제59회 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윤종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 연사로 초청되어 '기술의 시대와 인간,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종인 교수는 1988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부조직 전문가로, 현재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연에서 윤 교수는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은 단순한 편리함이나 효율성 향상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도전을 던지고 있다"며 "오늘날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수단을 넘어 사회·경제·정치 전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AI,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등 최신 기술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성숙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윤종인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GIST아카데미 9월 조찬포럼에서 '기술의 시대와 인간,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강연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적 성찰의 중요성을 함께 논의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5월·6월·9월·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을 위한 조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60회 조찬포럼은 오는 10월 27일(월) 오전 7시, 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